

# 美術 작품을 통하여 본 齒科醫學

## 대 장 간

작자 미상 · 년대 18세기 후반

시골 장터에서나 거리에서 발치 시술을 하던 16~17세기 이후에는 보통 환자의 가정에서나 치과의사의 집에서 발치 시술을하여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파도기라고 할찌 대장간에서 쓰던 연장으로 발치시술은 19세기 초엽까지도 행하여 졌다. 이 그림은 한적한 시골의 대장간 내부도 각종 연장과 용광로가 있으며, 대장쟁이가 직접 발치하는 장면이다. 환자는 고통을 참지 못해 대장쟁이가 코를 쥐는 모습이 상당히 해학적이며 엄마의 고통에 울분을 못참은 꼬마가 빗자루를 들고 대장쟁이를 칠려고 하는 장면은 고통과 해방, 애정과 분노가 반상된 작품이다.

특히나 넓게 트인 창문으로 들어오는 맑은 하늘 싱그러운 나무를 통해서 구경꾼인듯한 방관자 또한 흥미있는 도구라고 할수있다. 등장 인물의 옷차림으로 봐서 상류사회의 풍속도 아울러 볼수 있어 좋다.



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

# 寶 城 合 金

## 寶城齒科技工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

代表 朴 允 三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 (253) 3411 · (255) 3024